

文化交流를 통해 본 中國의 統一展望*

沈 清 松

- I. 序 論 IV. 兩岸 文化交流의 制限
II. 兩岸 文化交流의 意義 V. 結 論
III. 兩岸 文化交流의 범위와 원칙

I. 序 論

所謂 ‘統一’은 단지 分斷된 國家가 國土上으로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分斷에 의해 形成되어진 政治制度·經濟制度·意識形態 및 生活方式등에 이르는 各 方面의 差異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統一이 쌍방간의 差異를 克服하고 統合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 자체는 쌍방의 相互理解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相互理解의 바탕이 없이 억지로 統一이 된다면 이러한 統一狀態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文化交流는 相互理解를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統一의 推進은 반드시 文化交流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文化交流 그 자체가 統一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리한 條件이지만 文化의 相互交流가 統一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本 論文은 ‘文化의 統一’ 문제가 아닌 ‘文化의 交流’ 문제를 主題로 한다.

1949년 中華民國 政府가 台灣으로 옮겨오고 中共이 中華人民共和國의 建國을 宣布한 이래로 쌍방은 國土分斷의 現實의 狀況에 처하였다. 40년의

* 이 論文은 第11次 韓中學術會議에서 主題發表된 것임.

斷絶을 거치는 동안 1949년에서 1978년의 쌍방 관계는 ‘軍事衝突期’에 속하며 中華民國 政府는 ‘反攻大陸’을 宣言했고 中共은 ‘台灣解放’으로 서로를 견제하였다. 1979년에서 1987년 10월에 이르는 기간은 ‘平和對峙期’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中華民國 政府는 ‘三不政策’과 ‘三民主意 中國統一’을 提倡하였고 中共은 ‘三通’, ‘一國兩制’를 主張하였다. 그후 1987년말에 이르러 中華民國 政府가 本土의 親知訪問을 허용하고 本土의 출판물을 開放함으로써 쌍방의 관계는 비로소 動的인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民間交流時期’가 도래하였다. 쌍방관계의 회복은 바로 文化的 交流(出版物的 開放)와 人道主義(親知訪問의 許可)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經濟交流가 活性化됨으로써 더욱 복잡한 樣相의 交流가 展開되기 시작하였다.

40년간의 斷絶을 겪고나서 台灣 人民이 다시 故土를 밟고 故國의 文物을 접함으로써 자연히 形容하기 어려운 感動을 맛보았으며 같은 血緣의 情을 불러일으켰다. 필경 兩岸은 血緣上으로나 文化上으로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5천년에 걸친 文化에 바탕을 둔 相互理解는 斷絶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심오한 文化的 理解는 또한 미래에 統一로 邁進하는데 固著한 기초가 된다. 더우기 금년 9월 22일 北京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안게임에 中華民國 代表團이 전세기편으로 參加함으로써 體育에 主權·國境 및 意識形態를 초월한 보편적인 文化를 대표한다는 점 이외에, 이번 아시안게임의 實況이 TV 및 新聞媒體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報道됨으로써 兩岸 人民의 進一步한 相互理解를 促進시켰으며 文化方面에 있어 平和的 競爭이라는 참신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 기간동안 비록 中共이 中華民國이 申請한 1998년 아시안게임의 유치권을 저지하고, 항공조난사건에 대해 台灣國民과 中共人들의 배상액을 同等하게 책정하는 不幸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단지 民事問題에 政治가 介入됨으로써 발생한 弊端에 불과하며 이것은 文化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전히 文化交流의 意義는 긍정적이다.

대체적으로 볼 때 약 3년간의 文化交流는 이미 양쪽 民間과 政府 공통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中華民國 政府는 이 방면에 있어 더욱 더 文化交流의 優先의인 地位를 계속 긍정하고 있으며 中華民國 政府代辯人인 邵玉銘 新聞局長도 ‘今後 兩岸의 관계는 文化가 優先이며 經濟·貿易은 그 다음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今年 6, 7월간에 舉行된 黨·政·學界·企業界의 代表가 參加한 國是會議에서도 文化交流가 兩岸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 會議에서 제출된 ‘大陸政策과 兩岸關係의 總結報告’ 中의 一連의 말들은 台灣의 各界가 兩岸관계에 있어 文化交流를 優先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공동인식하고 있음을 부여주는 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비록 追求하는 將來는 다르지만 現段階에 있어 兩岸關係의 실제적 運用에 관한 의견은 大同小異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機能의인 交流는 寬大해야 하고 政治的인 協商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台灣의 現在의 安全과 中國에 대한 長期的인 京鄉 및 人民個人的 利益, 이 세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安全·互惠·對等·務實의 4가지를 交流의 原則으로 삼는다. 때문에 學術·文化·科學技術의 交流—이것이 바로 文化交流이다—는 마땅히 신속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공동작업의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다’¹⁾

앞에서 언급한 쌍방간의 交流方面에 있어서 최근 中共은 상당한 不滿을 나타내고 있는 바, 특히 이번의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中共 올림픽위원회 屠德銘 副委員長은 台灣이 共產黨員의 入國을 禁止하고 있다는 理由로 台灣이 1998년 아시안게임을 主擧하는 것을 阻止한 바 있다. 이외에 中共의 各級 관리들 또한 台灣의 交流方面에서의 各種 制限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中華民國 政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正面對應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今年 10월 6일 總統部에 설치된 國家統一委員會의 제1차 회의에서 行政院 大陸工作會報 馬英九 執行秘書는 ‘2년 동안의 大陸政策과 兩岸關係’라는 發表文에서 文化交流는 兩岸 人民의 理解를 증진시

1) 聯合報, 1990年 7月 5日, 國是會議總結報告

키는 가장 有效한 수단이며, 今後의 學術·文藝交流方面을 더욱 확대 실시하고 一方에서 雙方으로, 部分에서 全面으로 그 交流를 推進해야하며, 經濟·貿易方面에 있어서는 國家安全과 經濟發展을 阻害하지 않는 것을 前提로 적당한 開放을 할 것이며, 政治方面은 中共이 民主·自由經濟를 도입하고 台灣을 武力으로 侵略하려는 野心을 버리고 中華民國의 對外關係를 방해하는 것을 正하지 않는한 中華民國 政府는 中共과 政治的·實質的 接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²⁾

이상을 綜合해 볼때 台灣측이든 中共측이든 몇가지의 政治的인 疑懼心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으나 文化交流의 지속적인 進行을 阻止할 수는 없으며, 事實상 이러한 文化交流는 이미 民間에 일종의 血脈相通의 共感帶가 형성되어 앞으로의 兩岸關係에 있어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명백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文化交流의 意義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 位相의 鼎立을 시도해보려 한다.

II. 兩岸 文化交流의 意義

일반적으로 말해 所謂 '文化交流'는 두개의 다른 文化간의 상호작용과정을 가르킨다. 그러나 台灣과 中國大陸은 基本的으로 하나의 同質文化에 속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兩岸의 文化交流에 있어 일종의 皮相的인 文化交流의 사고방식을 분명히 排除해야 한다. 이는 兩岸의 文化의 相互影響이 皮相的인 文化의 相互作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台灣과 中國大陸이 비록 하나의 文化의 傳統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彼此간에 여전히 많은 差異가 存在하므로 相互간에 交流의 과정을 통해 統合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差異는 地域的인 文化色彩의 差異, 現代化 推進過程의 差異 그리고 政經制度의 差異를 포함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1) 地域的 差異의 形成: 台灣은 약4백년전에 移住民이 中國文化의 大傳

2) 聯合報, 1990年 10月 8日, 第2版.

統과 각종 民間信仰을 가지고 台灣에 들어온 이래, 開拓의 過程과 移民社會의 固有한 特征-한편으로는 傳統文化를 保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傳統文化를 排斥한다-을 통해 점차 台灣地區에서 地域性을 띤 小傳統의 特色을 형성하였으며 民國 38년(1949년) 中華民國 政府가 台灣으로 옮겨옴으로써 中華文化의 大傳統이 다시 強化되었다. 그러나 兩岸의 政治的 斷絶 및 現代化 推進의 加速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傳統文化의 空洞化가 생김으로써 地方性을 띤 社會, 小傳統의 力量이 점차로 발흥하였다. 다른 時代, 다른 環境의 支配 및 다른 動機로 台灣에서는 '空間上의 移民'이 形成된 것이다. 中國大陸의 경우는 여전히 空間上으로 大傳統文化가 優勢를 점유했으나 台灣은 兩岸의 斷絶 및 交流가 쉽지 않은 환경때문에 獨自的인 小傳統文化가 형성되었다. 所謂 地域的 差異는 바로 이 大傳統과 小傳統의 差異를 가르킨다.

2) 現代化推進上의 差異: 傳統의인 中華文化는 農業社會의 기초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바꿔 말해서 現代貨 以前의 脈絡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大部分의 中國大陸地域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前現代'의 段階에 머무르고 있으나 台灣은 상대적으로 大部分의 地域이 現代化와 工業化의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鄉村 혹은 農村社會의 地域이 상당히 狹小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친밀한 國際交流, 신속한 情報通信으로 이미 '後現代' 潮流의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大陸은 '前現代' 文化에서 '現代' 文化로 가고 있으며 台灣은 이미 '前現代' 文化를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現代'에서 '後現代'에로의 전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 上述한 '空間上의 移民'뿐 아니라 '時間上의 移民'의 文化的 差異를 형성하였다.

3) 政經構造의 差異: 台灣은 70년대에 '十大建設'로써 經濟發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으며, 80년대에는 民主政治의 틀을 창출해냈는데 기본적으로 民主政治와 自由經濟는 台灣의 兩大支柱이며 따라서 台灣地域의 文化發展은 자연스럽게 民主와 自由開放風潮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大陸의

경우에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主導아래 극단적인 權力政治를 實行하고 經濟的으로는 集體經濟를 채택하고 있으며, 文化方面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傳統文化에 대해 反傳統·反封建·4大舊惡習打破등을 전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文化發展을 社會主義 精神文明의 建設로 보는데 이는 일종의 社會的 心理的 制度를 위한 機制에 속한다. 이와같이 兩岸은 文化方面의 發展에 있어 서로 다른 政經構造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上述한 差異들을 종합해보면 兩岸의 文化交流는 異質文化간의 交流가 아닌 空間·時間·制度의 差異에 기인하는 同質文化의 일종의 媒介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文化交流는 사실은 同一文化의 ‘媒介’ 또는 ‘仲裁(mediation)의 過程으로서, 간단히 말해 兩岸의 文化交流는 同一한 文化의 仲裁過程인 것이다.

그러면 ‘文化의 仲裁’는 무엇을 일컫는가? S.Bochner와 B.McLeod 등이 ‘仲裁者: 文化間의 橋樑’(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이란 책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異質文化의 交流에 대한 實證的 觀察에서 文化仲裁의 作用은 教育·出版·人的 往來 및 科學技術의 導入등을 통해 일찌기 많은 地域의 現代化를 촉진시켰음을 발견했다.³⁾ 바꿔 말해서 文化의 仲裁 그 자체가 ‘前現代’ 段階의 地域을 ‘現代化’ 段階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力量인 것이다. 그러나 文化의 仲裁가 現代化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때문에 ‘橋樑’이라는 단어를 宗教交流-역시 일종의 文化交流이다-에 정식으로 사용한 教皇 요한 바오로2세는 일찌기 ‘橋樑教會’라는 말로써 台灣과 홍콩의 天主教會가 한편으로 中華文化의 傳統을 宗教의 眞理에 接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中國大陸을 福音의 洗禮를 통해 中華文化로 回歸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仲裁’의 作用은 단순히 現代化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宗教의 眞理와 文

3) S.Bochner, ed., 「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 Schenkman Publishing Co, 1981. pp.7~10.

4) 羅漁, 吳雁編著, 「大陸中國天主教四十年大事記」, 台北, 輔仁大學出版社, 1986年, pp.394~404

化傳統의 媒介로도 通用될 수 있다.

以上の Bochner와 教皇 바오로2세등이 사용한 '仲裁'의 意義는 台灣과 中國大陸 兩岸의 '文化交流' 概念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參考가치가 있다. 이는 비록 雙方이 意識形態·政治體制와 經濟發展方面에 상당한 差異가 있지만 未來의 장기적인 發展 측면에서 보면 그 目標가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 中國의 特色이 있는 現代化國家의 建設을 위해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中國의 特色'과 '現代化'는 兩岸이 未來의 文化交流方面에 있어서의 共通된 目標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現代化에 대해 살펴보면, 台灣은 現代化의 過程上 그 程度가 이미 상당한 水準에 달해 이미 비교적 찬란한 成果와 비교적 풍부한 經驗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經濟制度의 現代化·政治制度의 現代化·科學技術의 現代化 뿐만 아니라 個人의 心理狀態까지도 이미 現代化의 指標에 符合하고 있다. 社會學者인 Inkeles 등의 研究에 의하면 現代化는 단지 制度와 管理의 方式뿐만 아니라 個人의 心理狀態 및 個人이 追求하는 價值觀도 포함된다.⁵⁾ 또 楊國樞·張分磊(1977), 黃俊傑·廖正宏(1987) 등이 Strödelbeck와 Kluckhohn이提起한 價值量表에 의해 행한 研究에서 台灣民衆은 現在와 未來의 時間의 動向·自然의 制御·個人主義의인 人間關係 및 成就程度 등을 중시하고 있음으로써 이미 現代化의 指標에 高度로 符合함을 證明하였다.⁶⁾

中國大陸의 경우는 계속해서 '四個現代化'를 國家建設의 重要目標로 삼고 있으나 中共은 지금까지 科學技術 및 國防現代化方面의 成果만이 비교적 顯著할 뿐 國家의 발전이 政治制度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現代

5) A. Inkeles, and D. Smith, 「Becoming Moder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p. 4-20

6) 楊國樞·張分磊, "大學生的價值取向與個人現代性", 未發表之論文, 1977年 Chü n-chieh Huang & Cheng-hung Liao,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 Value Orientation of Farmers in Taiwan' in Joseph Jiang, ed.,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 A Symposium」(Taipei : Free Council, 1987). pp. 223-254

化의 推進이 均衡을 잃고 일관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一般民衆이 心理的으로 現代化된 價値觀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볼 때 台灣과 中國大陸의 文化交流는 中國大陸이 가지고 있는 文化的 母體를 現代化에로 媒介할 수 있으며 台灣의 發展經驗을 中國大 現代化의 參考指標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中國의 特色에 관해 살펴보면 台灣은 現代化過程에 있어 확연히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그 現代化의 程度가 계속해서 深化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中華文化의 傳統으로 인하여 其他의 現代化國家와는 다른 特色을 갖고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台灣의 發展經驗을 中華文化가 民主政治와 自由經濟의 現代化脈絡속에서 발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전체 台灣發展의 經驗을 中國의 特色을 지닌 現代化國家의 追求에 그 目標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中國大陸의 경우는 毛澤東이 '新民主主義論'을提起한 이래 中華民族의 新社會와 新國家의 建設을 주장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新政治·新經濟뿐 아니라 新文化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中國에 있어서 첫번째 歷史性 飛躍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中共이 中國의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를 追求하는 始初이다. 그후 中共은 제13차 全國代表大會에서 두번째 歷史性 飛躍으로 보여지는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을提起했는데 그 주요한 論點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中心과 두개의 基本原則下에서 中國의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를 추구하자는 것이다.⁷⁾ 여기서 알 수 있듯이 中國의 特色을 찾는 것은 大陸에서도 文化發展의 基本방향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中共의 發展內部에 反封建·反傳統의 경향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自由民主의 風潮가 결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特色있는 文化的 力量의 自發的인 出現을 불가능하게 한다. 사실 中共이 일컫는 中國의 特色은 단지 '兼慮當前落後條件'(아울러 현재의 落後한 條件을 고려

7) 趙紫陽, "沿着有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光明日報, 1987年 11月 4日. 여기서 '하나의 中心'이란 經濟建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며 '두개의 基本 원칙'이란 '4項堅持'와 '改革開放'을 가리킨다.

한 것) 등등의 뜻으로써 中華文化의 傳統을 결핍하고 있는 것이 그 特色의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台灣은 自由의 분위기와 民主制度 중에서 傳統文化에 기인한 創造의인 活力을 保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中國人이 現代生活의 脈絡속에서 創造한 文化的 傳統의 새로운 方向이 表출되고 있다. 따라서 今後의 台灣과 大陸의 文化交流는 中國大陸을 中華文化로 回歸시키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해 兩岸의 文化交流는 그 임무가 中國大陸에 있어서 中華文化로 하여금 現代化의 脈絡에서 傳承되고 創造되는 넓은 길로 들어서도록 仲裁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台灣과 中國大陸의 文化交流는 일종의 媒介와 仲裁의 過程으로 볼때 바로 大陸文化의 母體를 現代化되게하고 中華文化의 特色을 갖게하는 仲裁의 歷史이다.

III. 兩岸 文化交流의 범위와 원칙

台灣과 大陸간의 文化交流에 있어 소위 '交流'의 의미를 확정한 후에 반드시 더 나아가 '文化'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兩岸 文化交流의 범위에 대한 進一步한 이해가 가능할뿐 아니라 交流의 원칙도 정립할 수 있다.

필자는 일찌기 '解除世界魔呪'라는 책에서 文化의 의미와 定義에 대해 분명한 정리를 하면서 人類學者 E.B. Taylor · 社會學者 E. Durkheim · 哲學者 J. Ladrière 등이 文化에 대해 내린 定義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이 검토내용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⁸⁾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검토에 의거하여 필자가 '文化'에 대해 내린 비교적 포괄적이고 體系的인 定義인데 이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所謂 文化는 時間에 따라 발전된 生活團體의 創造過程과 結果의 표현으

8) 沈清松, 「解除世界魔呪」, 台北, 時報出版公司, 1984年, pp.22~25.

로서 信仰·認知·規範·表現과 行爲의 각종 體系를 포함한다.’

以上の 定義는 몇개의 특징을 포함하는데 이 몇몇의 특징은 兩岸의 文化交流에 대해 깊은 意義를 갖는다.

첫째, 이 定義는 文化와 하나의 生活團體간의 밀접한 관계에 중점을 두는데 主要한 것은 ‘共同生活을 하면서 共同된 成長을 경험함으로써 共同으로 文化를 創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兩岸은 40여년에 걸친 政治의 斷絶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해 비록 서로 各自 과거 中華文化의 遺産을 繼承하고 있더라도 필경 共同生活을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共同으로 文化를 創造할 수 없었던 까닭에 地域性의 差異가 점점 현저히 나타났다. 今後의 文化交流는 兩岸의 人民으로 하여금 彼此간에 더욱 많은 相互接觸과 相互理解의 機會 및 서로의 生活를 共有하고, 여기에 의거해서 단절된 부분을 連結시켜 새로이 共同으로 文化를 創造하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당연히 필자가提起한 定義로 보면 반드시 하나의 共同生活團體가 形成될 수 있어야 하고 彼此의 경험이 共同으로 成長할 수 있을 때 비로소 文化交流는 文化統一의 段階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上求한 定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文化는 개인과 집단이 시간의 흐름속에서 그 創造能力을 발휘하는 過程과 結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文化 또한 ‘潛在的 能力’에서 ‘實現’으로의 現象이며, 潛在的 能力에서 實現에 이르는 것이 바로 過程이며 이미 實現된 것은 結果가 되는데 그중에는 中國과 西洋의 思想家가 모두 중시한 ‘修練陶成’ 혹은 ‘人文化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兩岸이 共同으로 繼承하고 있는 中華文化는 단지 과거의 聖賢들이 創造한 文化의 結果이다. 이러한 結果는 兩岸이 分裂된 후 台灣의 경우에는 現代화와 工業化의 排戰을 거쳐 참신한 創造의 過程으로 轉換되었으나, 中共은 스스로 反傳統·反封建을 내세운 데다가 斷絶을 겪음으로써 우수한 傳統이 점차 消失되면서 傳統文化가 가지고 있는 劣等性이 不知不識에 繼承되어 내려왔다. 그러나 兩岸이 가지고 있는 共同의 問題는 文化의 劣等한 부분을 繼承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現代化의 排戰에 직면하고 있든간에 모두 狹富의 作風이나 추악하고 비정한 心理狀態를 표출하는등 文化를 같고 다듬는 素養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今後의 文化交流는 반드시 相互對照 및 比較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文化의 劣等要素를 解消시켜야 할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文化를 같고 다듬고 스스로 文化를 創造할 수 있는 적합한 制度를 선택해야만 한다.

세째, 앞의 定義에서도 살피듯이 한 生活團體의 文化創造는 信仰・認知・規範・表現・行爲의 5개 體系를 통해 潛在의 能力에서 實現의 過程을 거쳐서 傳承되고 創造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文化交流는 반드시 이 다섯가지 항목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文化交流의 推進에 포함시킬 價値가 있는 어떤 항목도 이 다섯 항목안에서 그 위치를 정해야만 한다. 이 상 다섯 항목의 內容을 살펴보면 필자는 어떠한 항목의 交流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항목의 交流가 비교적 결핍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方面의 論議에 의거하여 우리는 대체적이나마 앞으로의 兩岸 文化交流의 方向과 原則을 알 수 있는데 그 分析은 다음과 같다.

1. 信仰體系

信仰은 文化에 있어 가장 심오한 부분이며 文化交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는 信仰이 개인 혹은 집단에 賦與하는 生命의 의미에 대한 價値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信仰體系는 人文信仰은 인간의 心靈이 인간본성이 요구하는 價値와 理想에 符合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眞理・正義・仁愛・和合등등이다. 所謂 宗教信仰은 人文信仰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超越性과 神聖性으로서 制度化하는 것이다.

우선 人文信仰의 측면을 살펴보면 兩岸의 文化交流는 반드시 좋고 나쁨의 取捨選擇에 의거해서 傳統의 中華文化와 現代工業社會가 추구하는 價

值와 思想을 종합해야 한다. 中華文化중의 價値와 理想은 여전히 中國人으로서 하여금 의미있고 엄격하게 存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仁愛·信義·化합·인간의 完美性-예를 들면 衆生도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堯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은 現代人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現代社會의 價値와 理想의 추구를 同伴해야 하는데 自我實現·自由平等·社會責任·業務와 休息의 均衡 그리고 情報의 流通과 滿足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에 社會主義에서의 價値와 理想은 부분적으로 社會主義의 實現에 공헌해야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일을 통한 人性의 實現·反利己主義·平等追求등등을 들 수 있다.⁹⁾

그러나 交流의 過程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比較를 통해 自覺하여야 하며 彼此간의 價値體系上的 缺陷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傳統의인 中華文化에 비록 많은 우수한 價値와 理想이 있지만 반면에 封建思想·特權意識 및 成就慾의 결핍 그리고 推進力の 결핍등 많은 弊端을 안고 있다. 現代社會 역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좋은 價値와 理想이 있지만 權力的 橫行·黃金萬能主義·惡性的競爭·消費主義·環境汚染 등등의 病弊가 存在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비록 일찌기 많은 부분에서 人間性에 대한 理想을 일깨워주었으나 또한 미래의 社會建設에 不利한 階級鬭爭·生産力地上主義 등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交流過程 속에서 반드시 스스로 검토해야 하며, 여기서 惡은 제거하고 善은 發揚해야 하는데 이는 어떠한 政治暴力도 人間生活을 이롭게 하는 價値와 理想을 創造할 수 없으며 다만 성실한 往來와 對話만이 共同으로 享有할 수 있는 價値를 創造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宗教信仰의 方面에서 보면 最近 2년간의 台灣과 大陸의 宗教交流는 모두 民間信仰의 차원에 局限되어 있음으로써 몇몇 큰 宗教의 交流가 매우 간접적인 상태에 머물러 개별적인 神父나 牧士 또는 僧侶 및 外國

9) 沈清松, “價値體系的現況與評估”, 「民國七十七年度中華民國文化發展之評估與展望」, 台北, 行政院文建會, 1989, pp.7~11

의 宣敎團體를 통한 往來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民間信仰方面을 보면 台灣의 各 民間寺刹, 예를 들면 南方澳의 南天宮, 大甲의 鎮瀾宮 및 기타의 크고 작은 寺刹이 中國大陸에 진출했는데 이는 최근의 가장 注目할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調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各 寺刹의 大陸進出現象은 사실상 功利的인 動機를 충분히 배제한 듯이 보이나 심지어 대량의 자금을 낭비하면서 寺刹을 건축하고 각종 親善關係를 수립하여 스스로의 靈驗性的 指標로 삼음으로써 그 地域에 宗教熱을 조장하는등 宗教의 경건함을 한낱 利益追求의 手段으로 轉落시켰다.¹⁰⁾ 이러한 형태의 交流方式은 宗教가 超越性·神聖性 및 制度性으로써 인간의 영혼을 昇化시키는 작용을 할 수 없게 하였다. 台灣의 民間사찰이 그 本院을 大陸에 設立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나, 만약 利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단지 宗教信仰의 通俗化를 초래할 뿐이다. 이는 사실상 스스로 短點을 노출하는 交流方式이며 自我를 昇化시키는 交流方式은 아니다. 中國大陸의 경우를 보면, 分斷된 40여년간 中共은 宗教를 人民의 아편으로 간주하면서 宗教는 社會에 내재하는 矛盾과 苦痛으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인간이 矛盾과 苦痛중의 영혼을 다른 힘에 의지함으로써 사회에서 받는 苦痛을 마취시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社會主義가 실현되지만 하면 社會속의 矛盾과 苦痛이 사라질 것이므로 宗教는 자동적으로 消滅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中共은 1979년부터 宗教에 대한 開放政策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은 國際의 이미지의 改善·대외관계의 擴大 및 外國科學技術의 支援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大陸의 의도하에서는 宗教 본래의 信仰機能과 超越性·神聖性·制度性的 發展은 어렵고 반대로 退步하는 것이다. 비록 1984년 文化에 대한 熱風이 일어난 후 상당히 많은 宗教研究가 이루어졌으나 敎義·敎會規範 自體의 研究에는 알맹이가 없다. 반대로 台灣은 불교

10) 瞿海源, “台灣의 民族信仰”, 「民國七十八年 中華民國文化發展之評估與展望」, 台北, 行政院文建會, 1990年, pp.22~48

· 기독교 · 천주교 · 도교 · 회교 등 각종의 大宗教가 어느 것을 막론하고 政治와 사회의 自由開放 및 헌법상의 宗教自由에 대한 保障에 힘입어 모두 教義 · 教規 · 儀禮 등에 대해 實踐과 研究方面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않은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宗教信仰交流의 원칙에 대해 말해보면, 大陸의 寺刹은 台灣의 民間信仰에 대해 根源性을 제공할 수 있고 台灣의 各 大宗教는 中國大陸에 教義 · 教規 · 儀禮方面의 研究와 實踐에서 얻은 成果를 제공할 수 있다. 現在 中國大陸 各地의 宗教機構는 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人材의 培養 · 制度의 改良 등 各 方面에 모두 經典 · 資料 · 人力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 台灣의 各 大宗教는 타당성 있는 橋樑教會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認知體系

所謂 ‘認知’는 개인과 集團의 自我와 社會 및 自然에 대한 知識 및 이러한 知識이 연속 발전하는 方法을 가르킨다. 기본적으로 認知方面의 交流는 學術 · 出版 · 情報의 세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學術方面에 있어서 中華文化의 특색을 지닌 現代化된 中國의 달성을 위해 兩岸의 學術交流는 人文과 社會科學의 交流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學術會議에 共同參與하여 學術研究의 成果를 共同으로 享有하고, 특히 기본서적의 해석과 專門性을 띤 主題의 研究를 共同으로 推進하며 그 최종목적을 未來中國의 理想型과 合理的인 가능한 統一에의 접근법을 탐구하는데 두어야 한다. 그중 人文科學方面, 특히 文學 · 史學 · 哲學方面의 學者들은 마땅히 共同으로 中國文化의 基低를 이루는 經典 및 各種의 藏書에 대한 整理 및 創造의인 解釋을 끌어내어 진정한 ‘中國의 特色’의 位相을 정립하고 現代中國文化로 하여금 그 創造力을 啓發하게 해야 한다. 社會科學者들은 서로 協力하여 現代中國의 社會가 가져야 할 社會의 構造

및 組織과 制度를 研究分析함으로써 生産·管理·分配의 효율성을 提高해야 한다.

둘째, 出版부문은 兩岸의 出版界가 많은 부분에서 相互補完할 수 있다. 한편으로 中國大陸의 學者들은 그들이 이루어놓은 오랜동안의 研究成果를 政治의 壓力과 出版經營의 문제로 인해 出版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台灣의 出版界에서 풍부한 財力으로 이들을 印刷·出版하여 햇빛을 보게 하여야 할 것이다. 台灣쪽의 研究成果는 그 著作權의 保障아래 大陸에서 광범위하게 流通될 수 있으며 적어도 價格의 차이로 인한 交流의 저해는 없어야 한다. 이외에 兩岸의 學術界는 마땅히 현재의 中國의 필요에 따라 編輯 및 이에 관련된 專門書籍 및 叢書의 執筆에 協力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情報方面을 살펴보면, 現在 兩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쌍방 記者의 취재를 開放하였으며 台灣의 共產黨員 身分의 記者에 대한 制限과 大陸의 制度의 不合理性·社會의 엄격한 統制등에 의한 취재상의 難題등은 경험의 축적과 함께 改善될 것이며 合理的인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다. 便紙·電話·팩시밀리·電報·衛星 및 심지어 共同의 情報網의 設立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交流의 通路가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속 그 가능성을 研究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순수민간차원의 情報交流는 반드시 兩岸 文化方面에 있어 認知의 提高에 一助를 할 것이다.

3. 規範體系

‘規範’은 個人과 集團이 善惡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인간상호 관계의 規則으로서 倫理規範과 法律規範을 포함한다.

法律規範에 관해 말하면 台灣은 이미 法治社會에 들어섰으나 中國大陸은 그 시작이 늦은데다가 中斷되기까지 했다. 이 方面에 있어서는 台灣이 入法·司法 및 執行의 경험을 中國大陸에 參考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兩岸은 倫理規範에 있어 모두 規範解體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台灣의 경우는 社會 자체의 변화로 인하여 現代의 段階에서 後現代社會의 段階로 進행하는 과정에 있어 倫理規範 자체의 解體作用이 造成됨으로써 倫理規範의 解體現象이 나타났으며, 中國大陸 또한 前現代社會에서 現代社會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黃金만을 추구하는 現象이 나타남으로써 價值觀에 있어 虛無主義가 출현하여 눈앞의 利益과 快樂만을 중시하는 規範의 혼란과 動搖現象이 생겨났다. 어쨌든 規範의 解體 또는 規範의 혼란등은 모두 인간간에 尊重하는 마음과 명확한 相互關係의 規則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今後 兩岸은 과연 어떻게 現代社會의 脈絡에서 倫理規範을 再建하며 인간과 인간·인간과 자연·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를 확립할 것인가를 共同으로 모색해야 한다.

以上에서 살펴본 倫理規範의 문제는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며 현재상황에서 가장 急迫한 것은 台灣쪽에 있어서는 兩岸人民關係法案의 審議·通過 및 實行的 公布인데, 이로써 大陸人士의 台灣訪問과 台灣人士의 大陸訪問에 의해 台灣地域에서 발생되는 法律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中國大陸의 경우도 빠른 시일안에 合理的인 態度로 이와 유사한 法案을 制定함으로써 쌍방 人士의 相互訪問에 의해 大陸地域에서 야기되는 法律問題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4. 表現體系

藝術方面의 活動과 作品은 인간을 가장 잘 感動시키며 가장 쉽게 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다. 藝術作品은 獨逸 觀念論에서 말하는 所謂 ‘共感’(Sensus Communis)¹¹⁾ 또는 所謂 ‘具體적인 對話可能性’(Concrete Communicability)을 표현한다. 傳統藝術 또는 地方藝術을 불문하고 相互交流는 相互理解와 感情의 公有 및 彼此간의 認識水準의 증가를 가장 잘 가져

11) H.G.Gadmer, 「Truth and Method」, London : Sheed & Ward, 1975, pp.19~29.

와 表現의 技術을 다듬고 발전시킨다.

台灣은 表現方面的 발전에 있어 中華民國 政府가 台灣으로 옮긴 이래 兩岸의 斷絶과 일시적인 文化的 隔離 및 西方思潮의 流入으로 인하여 60년대에는 각 表現部門에 있어 거의가 西方의 각종 現代藝術潮流가 中心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P.P 藝術 · O.P 藝術 · 新劇場 · 新潮流의 映畫등이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傳統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차로 나타나면서 地方戲曲 · 祭祀儀典 · 兒童戲劇 · 雜技 등의 각종 民間藝術과 鄉土文學이 世人의 注目을 끌었다. 台灣의 表現文化的 발전은 언제나 傳統藝術과 民間藝術 그리고 現代藝術사이의 徘徊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商品化의 급속한 추세로 인해 大衆文化가 興起하면서 각종의 表現形式 - 民間分野와 專門分野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市場需要에 맞추어 世俗化되었다.

大陸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傳統藝術이 文化大革命후에 대부분이 생기를 잃었으며, 또 改革開放의 결과로 所謂 '資產階級自由化思潮'의 충격아래 中共中央常務委員 李瑞環이 '퇴폐적이고 淫亂한 出版物과 音響製品이 대량으로 製作되고 傳播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심각히 오염시켰다'¹²⁾고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前現代의 段階에서 現代의 段階로 進入하는 過程중에 商品化와 通俗化의 藝術의 表現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中共의 政府차원에서 所謂 '兩手抓'의 文化政策을 進行하여 한편으로 음란 · 퇴폐의 一掃를 더욱 強化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우수한 文藝作品을 이용하여 思想과 文化陳地를 확보하여 資產階級自由化의 思想이 文藝領域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 資產階級自由化思想에 반대하는 成果를 확대하고 공고히 한다'¹³⁾는 社會主義發展에 부합하게 文化를 번영시키는 政策을 펴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中共文化의 발전은 傳統에 대한 批判과 大衆文化 그리고 社會主義文化의 3者간에서의 徘徊인

12) 李瑞環, "關於弘揚民族優秀文化的 落干問題", 「文化研究」, 1990年 3月, pp.5~6.

13) Ibid. p.6

것이다.

비록 兩岸이 藝術表現方面에서 서로 추구하는 점이 다르지만 앞으로 表現領域에 있어서 쌍방이 交流할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매우 넓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傳統藝術과 地方藝術은 人類歷史에 있어 共同的인 연속감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大陸의 傳統과 地方藝術이 文革期間중에 상당한 迫害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풍부한 생명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쌍방이 共同으로 傳統의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사회의 脈絡에서 그것을 復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兩岸이 所藏하고 있는 文物을 살펴보자. 예를 들면 쌍방의 故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文物은 각자의 特色을 갖고 있으나 모두 中華文化의 풍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 쌍방간에 交流의 通路를 開設하는 것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大陸은 時空上으로 文化의 母體를 장악하고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어 최근 考古學의 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發見을 했다. 예를 들면 西安에서 각종 文物이 出土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全體 中國人들의 共同된 文化遺産에 속하므로 文物展覽과 유사한 것이 交流로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兩岸이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現代中國人の 生活에 기초해서 現代中國人の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現代作品과 藝術形式이다. 이러한 종류의 作品과 藝術形式의 出現을 위해서는 兩岸의 藝術文化從事者들이 共同으로 協議하고 摸索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들은 現代의 市場經濟에 종속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商品化와 世俗化의 威脅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兩岸이 現代의 藝術을 摸索하는데 있어서의 共同의 問題이다. 어떻게 交流를 進행하여 現代의 中國人으로 하여금 그들을 感動시키는 共通의 符號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表現體系의 交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 行爲體系

行爲의 관점에서 보면, 兩岸의 역사적 경험과 生活水準의 차이로 인해 兩岸의 人民들의 日常生活의 行爲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와 感情上的 장벽을 형성하였다. 台灣의 經濟의 발전하에서 富가 均等히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벼락부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몇가지 있으며 黃金을 중시하고 禮를 등안시하는 風潮를 낳았으며 일상적인 禮節과 團體生活方面에 있어 秩序와 美感을 결핍하고 있다. 大陸의 경우도 經濟의 인 規制로 生活水準이 낙후되고 傳統에 대한 비판에서 傳統文化가 가지고 있는 많은 劣等要素를 이어받은 데다가 政治的인 暗闘까지 겹쳐 特殊한 행위형태가 造成되었다. 게다가 兩岸간에 交流가 시작된 후 이러한 行爲方面의 差異와 異質感이 往往 彼此의 心理上에 더욱 큰 衝擊을 가함으로써 심지어는 쌍방에 誤解도 불러일으키는 등, 兩岸의 人民들로 하여금 더 많은 共感的 理解를 통해 쌍방간의 差異를 克服하고 誤解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行爲部門에는 또한 人類의 自然에 대한 統制와 社會管理의 節次도 포함되는 데 이는 自然科學技術과 社會科學技術의 交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선 自然科學技術方面을 보면, 이는 국가의 力量과 安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民生方面의 보편적인 科學技術을 제외하고 中共이 武力으로 台灣을 侵功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宣言이 있기 전에는 쌍방간의 自然科學技術의 交流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社會科學技術方面은 管理技術 및 政治制度의 合理化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台灣의 專門家나 學者가 台灣에서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理論과 技術을 中國인의 特殊한 需要에 결합시킬 수 있으므로 大陸쪽의 需要를 만족시키는데 반드시 有益할 것이다.

그렇지만 쌍방은 行爲體系의 交流에 있어 共同的의 필요성이 있는데 첫째는 中國의 방대한 民衆이 모두 더 많은 教育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台灣의 民衆은 行爲方面에 있어 秩序와 美感에 대한 學習을 필요로 하며, 大陸의 民衆 또한 반드시 과거의 貧困과 政治闘의 암울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現代市民의 행위양식을 배워야 하는, 쌍방은 모두 더 많은 教育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 政治行爲方面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中華文化의 우수한 傳統을 表現하는데 주력해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現代化가 요구하는 政治文化에 부합하는 것 또한 쌍방의 中國人들이 共同으로 배우고 實踐해야 한다.

IV. 兩岸 文化交流의 制限

文化는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整體로서 발전과정중에 文化의 主體는 반드시 수시로 스스로가 걸어온 分岐點 및 潛在해 있는 危機와 직면하고 있는 排戰에 대해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台灣과 大陸의 文化發展은 그 交流過程에 있어 이러한 歷史的 要素와 본질적 特性으로 말미암아 往往 交流上的 制限을 조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進一步한 克服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台灣쪽을 살펴보면 台灣文化의 발전은 몇몇의 異質의인 요소와 상호중복된 사회기초에서 형성된 文化體系로 構成되었는데, 이러한 文化體系는 현재 각자 약간의 危機에 직면해있다.

첫째, 일찌기 移住民이 갖고 들어왔던 傳統的인 中華文化와 民間信仰은 後者에 台灣의 開拓精神 및 移民社會의 特質이 덧붙여짐으로써 40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점차로 地域의 特色을 띠게되어 局地的인 小傳統을 형성하였다.

台灣에 있어서의 中華文化의 大傳統은 1949년 中華民國 政府가 台灣으로 옮겨온 후 中華文化의 復興運動을 推進함으로써 增強되었으며 1987년 말부터 許容한 大陸親知訪問과 出版物의 開放으로 다시 大陸文化의 母體를 접하게 됨으로써 그 大傳統성이 增強되었다. 中華文化의 大傳統은 비록 한편으로는 大陸의 母體文化를 흡수했으나 創造的인 해석의 결핍으로 인해 점점 現代生活와 분리되어 空洞化와 隔離化의 危機를 맞고 있다. 또 地方文化는 政策上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그중의 우수한 요소를 개발하고 發揚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또한 分離主義의 영향까지 겹쳐 政

治의 문제로 오염되었다.

둘째, 工業社會로의 변화가 내포하고 있는 文化의 推進力問題이다. 현재 台灣地區의 대부분은 이미 工業社會의 파급으로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로 변화했으며 사람들도 利他主義에서 利己主義로, 協力에서 競爭으로, 全體의인 幸福의 추구에서 근시안적인 快樂의 追求로 돌아섬으로써 自我實現 · 平等 · 自由 · 社會正義 · 業務와 休息의 均衡 · 情報流通의 價値가 나타났다으며, 그것과 科學技術의 특성 및 효율적 업무와 娛樂活動과의 結合을 추구하는 文化的 特色이 현저하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의 推進力 자체의 危機는 ‘公利化’ · ‘商品化’ · ‘通俗化’에 있는 것이다.¹⁴⁾

세째 外來文化의 영향이다. 台灣은 일찌기 네덜란드의 統治를 받았으며 甲午戰爭후에는 日本의 統治를 받았는데 이들 植民國家は 다소간의 그들 文化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특히 日本은 台灣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台灣統治期가 지난후에도 여전히 經濟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日本의 台灣에 대한 文化的 영향은 持續性을 띠고 있다. 더우기 최근 몇년간에는 國際交通의 發達 · 편리한 情報體系로 말미암아 先進國의 前衛로서의 성격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後現代’의 文化潮流가 계속해서 台灣에 流入되어 一切의 既成秩序가 해체되고 있을뿐 아니라 심각한 反規範現象을 출현시켰다. 情報化社會의 到來는 이미 台灣의 文化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체계있는 公共政策을 통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外來文化가 造成한 文化的 危機는 바로 不知不識중에 盲目的으로 導入되어 台灣의 先進國에 대한 ‘文化從屬’ 및 先進國의 台灣에 대한 ‘文化支配’의 狀況에 있는 것이다.¹⁵⁾

結論의으로 말해서 台灣의 경우는 現在의 文化發見에 있어서 발생한 內部問題가 쌍방간의 文化交流에 制限要因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는

14) 沈清松, “台灣經驗的文化問題及其展望”, 公共政策研討會論文, 台北, 1990年, pp.12~15.

15) 沈清松 · 汪琪 · 鍾蔚文, 「台灣地區資訊化歷程與文化變遷之研究」, 國科會專制研究計劃報告, 台北, 1988年, pp.125-127.

傳統文化의 空洞化·隔離化 및 地方文化의 非理性化·功利化에 外來文化에 대한 從屬이 포함된다. 全體의으로 말해 바로 이러한 歷史構成要素간의 結合不足과 相互衝突, 특히 戒嚴이 解除된 후의 社會力량의 開放 아래 政治的 抵抗力의 介入, 各種次元의 文化競爭과 中華文化의 大傳統과의 相互衝突形勢, 또는 彼此간에 衝突의 潛在的 原因을 갖고 있는 것이다. 1989년말의 公職者選舉는 7명의 民進黨 및 無所屬人士를 懸市長으로 當選시켰고, 各級教育에서 進行되고 있는 '雙語教學'을 보더라도 文化의 不良한 結合이 물고온 文化衝突의 一面을 발견할 수 있다. 때문에 台灣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文化의 문제는 '文化從屬'의 危機에 抵抗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中華文化의 創造力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자체의 完全性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各次元의 文化의 結合能力을 強化해야만이 中華文化와 現代化를 媒介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中國大陸의 경우 中共이 政權初期부터 傳統文化에 대한 비판작업을 시작하였으며 文化大革命時期에 이르러 그 批判이 頂點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 있어 文化는 持續的인 政治運動하에 심각한 衝擊과 被害를 입었으며 또 階級鬭爭을 指導方針으로 삼던 時期에는 理念鬭爭을 強調함으로써 往往 文化界·學術界 및 教育界를 資產階級的 代辯人으로 규정하고 文藝創作을 '小說을 利用한 反黨'¹⁶⁾으로 보았기 때문에 文化問題는 政治問題와 동일시되어 文化發展의 여지가 박탈되었다.

다음으로 中共은 革命鬭爭의 經驗에 있어 往往 傳統文化를 封建制의 殘滓로 간주함으로써 文化를 精確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그 편견을 피할 수 없다. 또 1979년 第11期 3中全會 이래 한편으로 物質文明을 強調하는 동시에 社會主義의 精神文明을 提倡하고 있다. 物質文明의 建設에 있어 生産力의 提高를 그 核心으로 하면서 文化는 그 위에서 興起하는 精神文明으로 본다. 바꿔 말해서 中共은 마르크스主義의 傳統에 根據하여 文化를 經濟生

16) 徐中振, "淺論我常社會主義文化建設思想的歷史發展", 承德師範學報, 社科版, 河北, 1988年 3月, pp.53~55에서 引用

活의 일종의 表現으로 보며 政治의 運用에 있어서는 精神文明을 社會安全을 調節하는 메카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故로 所謂 精神文明을 提高하는 目的은 ‘全民族의 教育·科學 및 文化水準 그리고 健康水準을 提高하여 崇高的 革命的 理想과 革命道德의 氣風을 樹立하여 高揚하고 多樣하고 풍부한 文化生活을 발전시킨다’¹⁷⁾는데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中共이 정확하게 文化의 機能을 파악하고 특히 現代文化를 建設하는 視角에는 匹할 수 없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¹⁸⁾

다음으로 政策上에 있어 文化를 社會主義의 精神文明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경향 때문에 부분적인 台灣의 現代文化에 대해 腐敗된 文化와 資產階級自由化思潮의 氾濫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腐敗를 澈絶하고 色情의 要素를 一掃해야하는 對象으로 생각하고 있다.

以上을 종합해보면 台灣·大陸 쌍방은 文化交流過程에 있어 반드시 스스로가 직면하고 있는 文化의 問題를 직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解決도 하여야 한다. 台灣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文化를 創造할 수 있는 力量을 회복함으로써 商品化·從屬化의 위협을 감소시켜 내부적인 文化結合을 強化해야 한다. 大陸은 傳統文化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누그러뜨려서 傳統文化의 機能을 부활시키고 文化에 대한 視野를 擴大함으로써 그것을 단지 社會主義精神文明에 국한시키지 않아야 하고 政治와 經濟의 關係에 대해서 制限을 두지않아야 한다. 이렇게 쌍방은 各自가 스스로의 問題를 解決하는 동시에 쌍방의 文化의 좋은 長點을 가지고 交流에 임해야 한다. 좋은 長點에는 쌍방이 保存하고 있는 傳統文化와 地方文化 및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現代文化가 포함된다. 그리고 쌍방이 가지고 있는 劣等한 文化로써 상대방과 交流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즉 民族文化나 現代文化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요소로써 交流를 한다면 바로 이 交流의 過程 자체가

17) 王蒙, “我國社會主義初級段階의 文化芻議”, 「文化研究」, 1989年 2月, pp.7~12를 참조. 이외에 王世達, 陶亞舒, “論社會主義初級段階의 低層次文化”, 「文化研究」, 1988年 5月, pp.39~45 참조

18) Ibid.

葉劣揚優(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발전시킨다)의歷程이 되는 것이다.

V. 結 論

以上の論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台灣・大陸 쌍방의 文化交流는 기본적으로 쌍방에서 繼承되고 있는 共同의 文化遺産을 運用하여 相互作用의 過程을 통해 兩岸人民의 共同的인 理解를 형성하여 40여년간의 國土分裂에 의해 造成된 生活上의 隔差를 補充함으로써 中國人들이 共感할 수 있는 理性的인 對話의 空間을 創造하는 것으로 이러한 空間의 造成은 國家統一을 達成하는 先決條件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認識아래 다음의 몇가지 結論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兩岸文化發의 現況으로 보자면 現在의 쌍방의 文化交流의 意義는 양쪽을 포함하는 全體 中國이 中華文化와 現代化를 結合하는 過程이며 이는 또한 兩岸文化交流의 최종목적이다.

둘째, 兩岸文化交流의 原則은 交流의 수행에 있어 반드시 互惠・對等・務實과 台灣의 安全을 존중하는 것에 入脚해야 한다. 또 交流의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共感的 理解와 相互比較를 통한 自覺’으로 歸結할 수 있는데 이는 儒家의 同情相感의 精神을 발휘하여 서로간에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弊端을 理解하고 交流중에 相互比較를 통하여 자기의 결함을 改善함으로써 文化의 변천이 惡을 향하지 않고 善을 향해 발전할 수 있게해야 한다. 여하한 文化의 改良에 대한 저항은 모두 文化交流의 繼續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세째 兩岸의 文化交流는 현재의 文化發展의 條件아래 반드시 각자에 내재하는 文化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克服해야 한다. 台灣의 경우는 傳統文化・地方文化와 現代工業化文化간의 결합이 어렵다는 것과 創造性的의 不足 및 通俗化・商品化의 難題를 克服해야 한다. 所謂 結合과 創造의 目的은 어떤 하나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요소의 長點을 발휘함으로써

써 良質의 結合을 달성하는데 있다. 大陸의 경우는 반드시 前現代段階의 각종 弊端을 시정하여 中華文化가 원래 가지고 있는 力量을 발휘하여 이것을 社會主義傳統 및 現代社會와 相互結合시켜야 한다. 이미 中共의 指導層과 知識層은 수십년동안의 社會主義의 文化傳統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¹⁹⁾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앞으로 中華文化와 現代文化에 도입시키는 것은 大陸의 회피할 수 없는 責任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葉劣揚優의 過程을 통해 中華文化와 現代文化를 결합시키는데 있어 如何히 마르크스主義의 長點을 結合시킬 것인가가 바로 大陸의 文化發展에 있어 반드시 저야할 責任이라는 것이다. 台灣과 大陸 쌍방은 각자가 자신들의 내부문제를 克服하는 길만이 나아가서 文化交流過程에 있어 結合에 有益한 條件을 造成하며 결국 文化上的 統一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쌍방의 文化交流는 더욱 풍부한 文化人材를 필요로 한다. 文化의 발전에는 合當한 文化政策을 필요로 하나 人材의 育成이 더욱 중요하다. 台灣의 경우는 근래 몇년간 經濟의 進歩에 따라 文化 또한 왕성한 발전을 하였으나 文化人材가 斷絶된 아쉬움이 있다. 今後에 如何히 더 많은 文化人材를 育成하고 文化方面 從事者들의 生活를 保障하여 그들의 才能을 발휘하게 하는 有備無患의 精神은 台灣에서 반드시 強化되어야 한다. 大陸의 경우는 과거 階級鬭爭을 綱領으로 삼던 시기에 文化人材들이 抑壓을 받은 데다가 작년의 6·4天安門事件에서도 오랫동안 어렵게 養成된 많은 知識人을 잃었다. 今後에 어떻게 새로운 人材를 育成하고, 各地에 亡命해 있는 다른 목소리를 가진 知識人들을 국가를 위해 공헌하게 할 것이며 人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이 大陸이 중시하여야 할 문제이다. 쌍방의 文化交流는 쌍방의 文化從事者간의 相互往來에 의지하고 있는데 만약 人材가 부족하다면 文化交流 자체도 結實을 맺기가 어렵다.

19) 王標林, “關於當前中國文化問題的機點思考” 鄭州, 「史學月刊」, 1989年 2月, pp.11~16. 필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관계와 근대중국문화의 연구는 반드시 마르크스주의를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